

요 약

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2분기 연속 증가세

- 2017년 3/4분기 서울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표준화지수 기준 102.3으로 전 분기 대비 0.2p 상승
 -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2013년 4/4분기(102.0) 이후 2017년 2/4분기에 처음으로 기준치(100)를 넘어선 이래 2분기 연속 100 이상을 기록
 -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 정치 불안 해소 및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심리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
- 3/4분기 서울의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1.1p 상승한 86.1을 기록해 2분기 연속 상승한 반면,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보다 5.4p 하락한 98.3을 기록
 -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의 하락은 북핵 리스크 등 대외 불안요인 확대 속에서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전 분기에 지수가 큰 폭으로 급등한 것에 따른 심리적 조정도 작용

서울시민들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 1순위는 ‘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’

- 조사 대상 가구의 올해 추석 지출은 대부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
 - 올해 추석 지출이 작년과 ‘비슷할 것이다’는 응답비율이 62.7%로 대부분을 차지
 - 서울시민의 올해 추석의 예상 지출액은 ‘20만~50만 원 미만’이 41.3%로 가장 많은 편
 - 서울시민의 추석 상차림 제품 구입 장소는 1순위 기준으로 ‘대형마트’가 49.9%로 가장 많고, 그다음은 ‘전통시장’ 38.5%, ‘농협·수협·축협’ 4.2% 등의 순
- 서울시민이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가장 바라는 과제는 ‘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’
 - ‘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’의 응답비율이 52.4%로 절반 이상을 차지
 - 그다음은 ‘소비심리 회복’(14.7%), ‘취약 소외 계층 배려’(12.9%), ‘먹거리 안전 강화’(12.8%), ‘교통 및 물류 대책 마련’(7.2%) 등의 순으로 조사

3/4분기 소상공인 업황은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

- 서울시 내 구별 상공회 25개소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, 3/4분기 소상공인 업황은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
 - 2017년 3/4분기 소상공인 업황은 2/4분기(100%)를 기준으로 할 때 88.4% 수준
- 전년 동기(100%)를 기준으로 본 3/4분기 업황도 91.3%로 전년 동기 수준을 하회
 - 이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기대 이상으로 크게 살아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
 - 그러나 전년 동기(100%)를 기준으로 본 소상공인 업황은 2017년 1/4분기 74.0%에서 2/4 분기 89.8%, 3/4분기 91.3%로 점차 나아지는 추세

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인건비가 28.8%로 1위

- 1/4분기와 2/4분기는 ‘판매저하 및 방문객 감소’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지만 3/4분기에는 ‘인건비’가 28.8%로 1위를 차지
 -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‘인건비’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, 인건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종사자 감축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
 - ‘인건비’ 다음으로는 ‘판매저하 및 방문객 감소’(18.0%)가 차지
- 소상공인들이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가장 바라는 과제는 ‘소비심리 회복’
 - ‘소비심리 회복’이 58.8%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, 그다음은 ‘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’이 41.2%를 차지
 -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

여성들은 경력단절 후 재취업 확률이 희박한 실정

- 여성들은 주로 출산, 육아, 남편의 근무지 이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
 - 여성들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출산 및 육아 문제로 휴가 사용이 가능해도 업무공백과 대체인력 채용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복직이 어렵다고 판단해 퇴직하는 경우가 빈번

- 정부나 서울시는 경력단절여성들의 구직활동에서부터 실제 취업능력 배양 등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지원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
 - 경력단절여성들은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육아와 가사일 등에 따른 시간 부족 등으로 구직활동이 여의치 않은 실정
 - 또한 경력단절여성은 단순히 경력만 끊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업무능력도 함께 저하되는 문제를 경험

관광분야는 매출 부진 속 한한령 완화·명절 특수 효과 기대감도 저조

- 명동 관광특구의 3/4분기 매출은 전 분기 기준(100%)으로 보합이지만, 전년 동기 기준(100%)으로는 50~60% 수준에 불과
 - 상인들은 한한령 완화 기미가 보이지 않고, 추석 명절 특수 효과도 작기 때문에 4/4분기 매출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
- 동대문 관광특구의 3/4분기 매출도 전 분기 기준(100%)으로 보합이지만, 사드사태 이전인 전년 동기(100%)와 비교하면 50~60%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
 - 특히 의류업이 한한령 영향 등으로 중국 바이어의 발길과 수출이 막히면서 도매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
- 홍대 상권의 3/4분기 매출은 전 분기 기준(100%)으로 60% 수준이고, 전년 동기 기준(100%)으로도 60~70% 수준으로 하락
 - 숙박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% 수준으로 하락했는데, 이는 중국 관광객 감소와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신축 호텔 오픈 등에 따른 객실단가 하락이 주 요인
- 관광특구의 가치를 높이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이 요구
 - 현재 관광정책이나 정부 지원은 관광특구의 현실과 여전에 맞지 않다는 불만이 많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요청
 -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, 도움이 되는 지원 방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, 현재 정책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상인 및 관계자들의 불만이 많은 편